

KBS **공식**
한국어능력시험
기출문제집

2026 상반기 제91, 90, 89회

족집게노트

차례

1일 차	[듣기·말하기] 빈출 이론	3
2일 차	[어휘] 빈출 이론 ①	4
3일 차	[어휘] 빈출 이론 ②	5
4일 차	[어휘] 빈출 이론 ③	6
5일 차	[어휘] 빈출 이론 ④	7
6일 차	[어법] 빈출 이론 ①	8
7일 차	[어법] 빈출 이론 ②	9
8일 차	[어법] 빈출 이론 ③	10
9일 차	[어법] 빈출 이론 ④	12
10일 차	[국어 문화] 빈출 이론 ①	14
11일 차	[국어 문화] 빈출 이론 ②	15
12일 차	[쓰기] 빈출 이론	16
13일 차	[창안] 빈출 이론	17
14일 차	[읽기] 빈출 이론	18

본 부가물의 내용 중 일부는 국립국어원이 제공하는 '표준국어대사전', '한국어 어문 규범'을 참고하였습니다.

1일 차 [듣기·말하기] 빈출 이론

1 듣기·말하기 글 유형

종류	개념
강연	일정한 주제에 대하여 청중 앞에서 강의 형식으로 말하는 유형의 담화
보도	대중 매체를 통하여 일반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알리는 유형의 담화 예) 뉴스, 교통 정보, 기상 정보
인터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개인이나 집단을 만나 정보를 수집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유형의 담화 예) 방송 인터뷰, 라디오 인터뷰
대화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유형의 담화
발표	어떤 사실이나 결과, 작품 등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유형의 담화
문학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 또는 그런 작품 예) 시, 시조, 우화, 판소리
토론	어떤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거를 들어 각각의 주장을 말하며 논의하는 유형의 담화

2 듣기 방법

(1) 사실적 듣기

개념	① 단어, 문장, 글 수준에서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 ② 언어 능력 중 가장 일차적이고 기본적인 능력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관련된 정보를 사실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함
세부 출제 유형	갈등 파악, 그림 해설 파악, 등장인물의 생각 파악, 상황 파악, 세부 내용 파악 등

(2) 추론적 듣기

개념	① 사실적 이해를 토대로 하여, 명시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내용을 파악한 후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 ② 정보를 분석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나아가, 주어진 정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논리적 판단을 내리고 의미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세부 출제 유형	갈등 해결, 내용 추론, 빈칸 추론, 소재의 의미 파악, 이어질 내용 추론 등

3 말하기의 내용 전개 방식

개념	자신의 주장이나 중심 화제, 쟁점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진술 방식
종류	① 대조: 둘 이상의 사물의 특성을 그 차이점이나 상대되는 성질을 들어 설명하는 방법 ② 문답: 묻고 답하는 형식을 통해 설명하는 방법 ③ 분류: 어떤 생각이나 대상들을 공통적인 특성에 근거하여 구분 짓는 방법 ④ 분석: 어떤 대상을 그 부분이나 구성 요소로 나누어 각 부분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법 ⑤ 비교: 둘 이상의 사물의 유사성이나 공통이 되는 성질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 ⑥ 비유: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어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방법 ⑦ 서사: 시간적 추이에 따라 사건의 진행 과정이나 사물의 움직임과 변화를 적어 나가는 방법 ⑧ 열거: 여러 가지 예나 사실을 낱말이 죽 늘어놓아 설명하는 방법 ⑨ 예시: 세부적인 예를 들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진술을 구체화하는 설명 방법 ⑩ 인과: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 ⑪ 인용: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빌려 쓰는 방법

2일 차 [어휘] 빈출 이론 ①

1 고유어

가납사니	쓸데없는 말을 지껄이기 좋아하는 수다스러운 사람
가늠	① 목표나 기준에 맞고 안 맞음을 헤아려 봄. 또는 헤아려 보는 목표나 기준 예) 빵 반죽을 알맞게 가늠 을 해 보다. ② 사물을 어림잡아 헤아림 예) 그 건물의 높이가 가늠 이 안 된다.
가탈	① 일이 순조롭게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조건 예) 내 동생이 하는 일은 가탈 이 많이 생긴다. ② 이리저리 트집을 잡아 까다롭게 구는 일 예) 수회는 모든 일에 가탈 을 부린다.
갈무리	① 물건 등을 잘 정리하거나 간수함 ② 일을 처리하여 마무리함 예) 옆 사람에게 일의 갈무리 를 부탁했다.
겨를	어떤 일을 하다가 생각 등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예) 일거리가 쌓여 잠시도 쉴 겨를 이 없다.
고깝다	섭섭하고 야속하여 마음이 언짢다. 예) 그는 나를 고까운 눈으로 보았다.
단출하다	일이나 차림차림이 간편하다. 예) 옷차림이 단출하다 .
둔덕	가운데가 솟아서 불룩하게 언덕이 진 곳 예) 강을 보기 위해 둔덕 으로 올라갔다.
득달갈다	잠시도 늦추지 않다. 예) 어머니의 득달같은 불호령이 떨어졌다.
몽둥그리다	여러 사실을 하나로 포괄하다. 예) 우리의 의견을 몽둥그리지 마.
바득바득	① 악지를 부려 자꾸 우기거나 조르는 모양 예) 그 애는 바득바득 우겼다. ② 악착스럽게 애쓰는 모양
바락바락	성이 나서 잇따라 기를 쓰거나 소리를 지르는 모양 예) 내 동생은 엄마께 바락바락 대들었다.
사리다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살살 피하며 몸을 아끼다. 예) 나는 피해를 입을까 하여 몸을 사렸다 .

사뭇	내내 끝까지 예) 이번 겨울 방학은 사뭇 바빴다.
삼삼하다	① 음식 맛이 조금 싱거운 듯하면서 맛이 있다. 예) 국물이 삼삼하다 . ② 사물이나 사람의 생김새나 됃됨이가 마음이 끌리게 그럴듯하다. 예) 얼굴이 삼삼하게 생긴다.
슬기	사리를 바르게 판단하고 일을 잘 처리해 내는 재능 예) 슬기 를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다.
씩수	어떤 일이나 사람이 앞으로 잘될 것 같은 낌새나 징조 예) 그는 좋은 경찰이 될 씩수 가 보인다.
조곤조곤	성질이나 태도가 조금 은근하고 끈덕진 모양 예) 선생님은 나에게 조곤조곤 말씀하셨다.
주눅	기운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움츠러드는 태도나 성질 예) 주눅 이 들어 말을 잘 못한다.
지레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 또는 어떤 기회나 때가 무르익기 전에 미리 예) 그는 경찰차를 보고 지레 놀라 달아났다.
짐짓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으나 일부러 그렇게 예) 그녀는 알면서도 짐짓 모르는 척했다.
차리다	자기의 이익을 따져 챙기다. 예) 제 욕심만 차리다 .
추레하다	겉모양이 깨끗하지 못하고 생기가 없다. 예) 의복 매무새가 추레하다 .
한들한들	가볍게 자꾸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흔들리게 하는 모양 예) 바람에 꽃들이 한들한들 움직였다.
해찰	일에는 마음을 두지 않고 쓸데없이 다른 짓을 함
허투루	아무렇게나 되는대로 예) 손님을 허투루 대접하다.

3일 차 [어휘] 빈출 이론 ②

1 한자어

결부(結付)	일정한 사물이나 현상을 서로 연관시킴
경계(警戒)	① 뜻밖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여 단속함 예 화재 예방 경계 가 강화되었다. ② 옳지 않은 일이나 잘못된 일들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서 주의하게 함 예 자만에 대한 경계 를 당부하다.
경질(更迭/更迭)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꿈 예 회사는 이번 일로 임원 경질 을 단행했다.
계제(階梯)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된 형편이나 기회 예 나는 이번 계제 에 이사를 갈 생각이다.
고착(固着)	① 물건 같은 것이 굳게 들러붙어 있음 ② 어떤 상황이나 현상이 굳어져 변하지 않음 예 문화 이질화 현상의 고착
공포(公布)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림
망라(網羅)	물고기나 새를 잡는 그물이라는 뜻으로, 널리 받아 들여 모두 포함함을 이르는 말
발군(拔群)	여럿 가운데에서 특별히 뛰어남 예 발군 의 성적
발현(發現/發顯)	속에 있거나 숨은 것이 밖으로 나타나거나 그렇게 나타나게 함. 또는 그런 결과 예 자의식의 발현
방만(放漫)	맷고 끊는 데가 없이 제멋대로 풀어져 있음
방증(傍證)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지는 않지만, 주변의 상황을 밝힘으로써 간접적으로 증명에 도움을 줌. 또는 그 증거 예 방증 자료
백미(白眉)	흰 눈썹이라는 뜻으로, 여럿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나 훌륭한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예 현대 소설의 백미 이다.
보도(報道)	대중 전달 매체를 통하여 일반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알림. 또는 그 소식 예 신문 보도 를 읽다.

부연(敷衍/敷衍)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덧붙여 자세히 말함 예 부연 자료가 필요하다.
사사(師事)	스승으로 섬김. 또는 스승으로 삼고 가르침을 받음
사족(蛇足)	'뱀을 다 그리고 나서 있지도 않은 발을 덧붙여 그려 넣는다'라는 뜻으로, 쓸데없는 군것질을 하여 도리어 잘못되게 함을 이르는 말
산실(産室)	어떤 일을 꾸미거나 이루어 내는 곳. 또는 그런 바탕 예 우리 학교를 인해 양성의 산실 로 만들겠다.
선풍(旋風)	돌발적으로 일어나 세상을 뒤흔드는 사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예 그의 결혼은 최대의 선풍 이었다.
수탁(受託)	다른 사람의 의뢰나 부탁을 받음. 또는 그런 일 예 부적절한 수탁 은 거절해라.
유치(誘致)	행사나 사업 등을 이끌어 들임 예 시민 단체는 후원금 유치 를 위해 노력했다.
재원(才媛)	재주가 뛰어난 젊은 여자 예 그녀는 훌륭한 재원 이다.
진수(眞髓)	사물이나 현상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 예 그 작품은 사실주의 소설의 진수 이다.
진척(進陟)	일이 목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 감 예 빠른 진척 을 보인다.
창궐(猖獗)	못된 세력이나 전염병 등이 세차게 일어나 검잡을 수 없이 퍼짐
추대(推戴)	윗사람으로 떠받들 예 임원들의 추대 로 그는 회장이 되었다.
추돌(追突)	자동차나 기차 등이 뒤에서 들이받음 예 출근길에 추돌 사고가 있었다.
치부(恥部)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부분 예 친구의 치부 를 목격했다.
회자(膾炙)	회와 구운 고기라는 뜻으로, 칭찬을 받으며 사람의 입에 자주 오르내림을 이르는 말

4일 차 [어휘] 빈출 이론 ③

1 어휘의 의미 관계

(1) 유의 관계

개념	말소리는 다르지만 서로 비슷한 의미를 지닌 단어들 간의 관계
특징	①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가 함께 쓰임 [예] 가락 - 선율 - 멜로디 ② 높임법이 발달해 있음 [예] 이름 - 성명 - 존함 - 함자 ③ 감각어가 발달해 있음 [예] 노랗다 - 노르스름하다 - 노릇하다 - 노리끼리하다 ④ 금기어의 영향으로 발생하기도 함 [예] 죽다 - 돌아가다

(2) 반의 관계

개념	의미가 서로 짝을 이루어 대립하는 단어들 간의 관계
유형	① 상보 반의어: 양분적 대립 관계에 있어 상호 배타적인 영역이 있는 반의어 [예] 남자 : 여자 ② 정도 반의어: 정도성을 가지는 척도에서 대립하는 두 단어 [예] 뜨겁다 : 차갑다 ③ 방향 반의어: 상대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의미상 대칭을 이루는 두 단어 [예] 가다 : 오다

(3) 상하 관계

개념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거나 다른 단어의 의미에 포함되는 관계 [예] 구름 : 적란운
유형	① 상위어(상어): 다른 단어의 뜻을 포함하는 단어 ② 하위어(하어): 다른 단어의 의미에 포함되는 단어

(4) 다의 관계와 동음이의 관계

다의 관계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관련된 의미를 지닌 경우
동음이의 관계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소리는 같지만 의미는 서로 다른 경우

2 속담

1	가는 말에 채찍질: ①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더 빨리하라고 독촉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 형편이나 힘이 한창 좋을 때라도 더욱 마음을 써서 힘써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가는[가던] 날이 장날: 일을 보러 가니 공교롭게 장이 서는 날이라는 뜻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은 일을 공교롭게 당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	꾸어다 높은 보릿자루[빚자루]: 여럿이 모여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옆에 가만히 있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	눈 가리고 아웅: ① '알은수로 남을 속이려 한다'라는 말 ② 실제로 보람도 없을 일을 공연히 형식적으로 하는 체하며 부질 없는 짓을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5	다 된 농사에 낫 들고 덤빈다: 일이 다 끝난 뒤에 쓸데없이 참견하고 나섬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6	다 된 죽에 코 빠졌다: 거의 다 된 일을 망쳐 버리는 주책없는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7	바늘구멍으로 하늘 보기: 전체를 포괄적으로 보지 못하는 매우 좁은 소견이나 관찰을 비꼬는 말
8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어떤 시련을 겪은 뒤에 더 강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9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 손해를 크게 볼 것을 생각지 않고 자기에게 마땅치 않은 것을 없애려고 그저 덤비기만 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0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
11	언 발에 오줌 누기: 임시변통은 될지 모르나 그 효력이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사태가 더 나빠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2	우물에 가 송충 찾는다: 모든 일에는 질서와 차례가 있는 법인데 일의 순서도 모르고 성급하게 덤빔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3	자기 얼굴[낮]에 침 뱉기: '남을 해치려고 하다가 도리어 자기에게 해를 입게 된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4	제 눈에 물 대기: 자기에게만 이롭도록 일을 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5일 차 [어휘] 빈출 이론 ④

1 한자 성어

1	고장난명(孤掌難鳴): ① '외손뼉만으로는 소리가 울리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혼자 힘만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② 맞서는 사람이 없으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음을 이르는 말
2	교각살우(矯角殺牛):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라는 뜻으로, 잘못된 점을 고치려다가 그 방법이나 정도가 지나쳐 오히려 일을 그르침을 이르는 말
3	낭중지추(囊中之錐):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뜻으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알려짐을 이르는 말
4	당랑거철(螳螂拒轍): 제 역량을 생각하지 않고, 강한 상대나 되지 않을 일에 덤벼드는 무모한 행동거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5	목불식정(目不識丁): '아주 간단한 글자인 '丁' 자를 보고도 그것이 '고무래'인 줄을 알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아주 까막눈임을 이르는 말
6	반포지효(反哺之孝):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효라는 뜻으로, 자식이 자란 후에 어버이의 은혜를 갚는 효성을 이르는 말
7	오비이락(烏飛梨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뜻으로, 아무 관계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억울하게 의심을 받거나 난처한 위치에 서게 됨을 이르는 말
8	주마가편(走馬加鞭):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라는 뜻으로, 잘하는 사람을 더욱 장려함을 이르는 말
9	혼정신성(昏定晨省): '밤에는 부모의 잠자리를 보아 드리고 이른 아침에는 부모의 밤새 안부를 묻는다'라는 뜻으로, 부모를 잘 섬기고 효성을 다함을 이르는 말

2 관용구

1	경종을 울리다: 잘못이나 위험을 미리 경계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다.
2	달(이) 차다: 아이를 배어 낳을 달이 되다.
3	상투(를) 잡다: 가장 높은 시세에 주식을 매입하다.
4	상투(를) 툄다: 총각이 장가들어 어른이 되다.
5	침 발라 놓다: 자기 소유임을 표시하다.

3 순화어

(1) 한자어 순화어

구분	순화 대상어	순화어
1	가료(加療)	치료, 고침, 병 고침
2	감안(勘案)	생각, 고려, 참작
3	고수부지(高水敷地)	둔치
4	납득(納得)	이해
5	노변(路邊)	길가
6	망년회(忘年會)	송년 모임, 송년회
7	매점(買占)	사재기
8	수순(手順)	순서, 절차, 차례
9	시말서(始末書)	경위서
10	잔반(殘飯)	남은 밥, 음식 찌꺼기

(2) 외래어 순화어

구분	순화 대상어	순화어
1	뉘앙스(nuance)	어감, 말맛, 느낌
2	데드라인(deadline)	한계선, 최종 한계, 마감, 기한
3	데뷔(début)	등단, 등장, 첫등장, 첫무대, 첫등단
4	디스카운트(discount)	에누리, 할인
5	발레파킹(valet parking)	대리주차
6	스크린 도어(screen door)	안전문
7	쿠사리	핀잔
8	팁(tip)	도움말, 봉사료
9	팝업 창(pop-up 窓)	알림창
10	플래카드(placard)	펼침막, 현수막

6일 차 [어법] 빈출 이론 ①

1 한글 맞춤법 규정

(1) 소리에 관한 것

① 두음 법칙

제11항

한자음 ‘랴, 러, 레,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룰’은 ‘열, 율’로 적는다.

예) 비율(比率), 실패율(失敗率), 백분율(百分率)

(2) 형태에 관한 것

① 접사가 붙어서 된 말

제25항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급히, 꾸준히, 딱히, 어렴풋이, 깨끗이, 곰곰이

②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

제29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

예) 받침고리, 사흔날, 선달, 손가락, 잠주름, 섬부르다, 잔다랑다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예) 바닷가, 부싯돌, 선짓국, 우렁잇속, 잇자국, 조갯살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예) 아랫니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예) 베갯잇

2.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예) 전셋집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예) 양치물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예) 가윗일, 예삿일

③ 준말

제35항

모음 ‘ㄴ, ㄷ’로 끝난 어간에 ‘-아 / -어, -았- / -었-’이 어울려 ‘나 / ㄴ, ㄷ / ㅅ’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예) 쑤었다 → 췌다, 보았다 → 봤다, 두었다 → 뒀다

[붙임1] ‘놓아’가 ‘놔’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붙임2] ‘ㄴ’ 뒤에 ‘어, -었-’이 어울려 ‘내, ㅅ’으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

예) 괴었다 → 께다

제39항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과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찮-’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예) 그럴지 않은 → 그럴잖은, 만만하지 않다 → 만만찮다, 번번하지 않다 → 번번찮다

(3) 그 밖의 것

① 한자어의 본음 표기와 속음 표기의 구별

제52항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

예) 본음으로 나는 것: 만난(萬難)

속음으로 나는 것: 곤란(困難), 논란(論難)

② ‘더라, -던’과 ‘-든지’의 구별

제56항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더라, -던’으로 적는다.

예) 지난 겨울은 몹시 춥더라, 그 사람 말 잘하던데, 깊은 물이 알아졌다, 얼마나 놀랐던지 몰라.

7일 차 [어법] 빈출 이론 ②

1 표준어 사정 원칙

(1)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자음)

제7항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예) 수평, 수나사, 수놈, 수사돈

다만1. 다음 단어에서는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한다. 접두사 ‘암-’이 결합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예) 수강아지, 수탉, 수돼지, 수평아리

다만2. 다음 단어의 접두사는 ‘숫-’으로 한다.

예) 숫염소

예) 솜이불[솜:니불], 샷일[샷닐], 내복약[내:봉낙], 직행열차[지갱널차], 영업용[영업농], 식용유[시공뉴], 백분율[백뿐눌]

[붙임 1] ‘ㄹ’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 음은 [ㄹ]로 발음한다.

예) 설익다[설릭따], 물약[물락], 서울역[서울력], 물엿[물련], 유들유들[유들류들]

(2)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모음)

제12항

‘웃-’ 및 ‘윗-’은 명사 ‘위’에 맞추어 ‘윗-’으로 통일한다.

예) 윗눈썹, 윗니, 윗도리, 윗잇몸

다만1.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한다.

예) 위짖, 위층, 위팔

다만2.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예) 웃국, 웃돈, 웃어른

2 표준 발음법

(1) 음의 동화

제20항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

예) 천리[철리], 광한루[광:할루]

[붙임] 첫소리 ‘ㄴ’이 ‘ㄷ’, ‘ㄹ’ 뒤에 연결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예) 뚫는[뚫른], 할네[할레]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ㄹ’을 [ㄴ]으로 발음한다.

예) 공권력[공권력] 동원령[동:원녕]

(2) 음의 첨가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예,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나, 녀, 뇨, 뉴]로 발음한다.

3 외래어 표기

구분	바른 표기(○)	틀린 표기(×)
1	링거	닝겔, 링어, 링게르, 링겔
2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지아
3	베네수엘라	베네주엘라, 베너수엘라, 베네쥬엘라
4	심포지엄	심포지움, 썸포지엄, 썸포지움
5	싱가포르	싱가폴, 썩가포르, 썩가폴
6	포르투갈	포르추갈, 폴투갈
7	호찌민	호치민, 오치민, 호쉬민, 오쉬민

4 로마자 표기

1	강강술래	Ganggangsullae
2	광안리	Gwangalli
3	속초	Sokcho
4	숙정문	Sukjeongmun
5	송례문	Sungnyemun
6	신선로	sinseollo
7	흥인지문	Heunginjimun

8일 차 [어법] 빈출 이론 ③-1

1 말소리

(1) 음운의 변동

교체 (대치)	① 음절의 끝소리 규칙: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자음 만이 음절의 끝소리로 발음되는 현상 [예] 박[박], 박[박], 부엌[부엌] / 간[간] / 날[날:], 날[날:] 낫[낫], 낫[낫], 낫[낫], 히읃[히읃] / 말[말] / 밤[밤] / 법[법], 무릎[무릎] / 방[방]
	② 비음화: 비음이 아닌 자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ㄹ’을 만나 비음 ‘ㅇ, ㄴ, ㄹ’으로 발음되는 현상 [예] 국물[궁물], 만물[만물], 밤물[밤물]
	③ 유음화: ‘ㄴ’이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변하는 현상 [예] 달나라[달라라], 광한루[광:할루]
	④ 구개음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ㅍ’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 [예] 미닫이[미:다지], 굴치다[구치다]
	⑤ 모음 조화: 앞 음절과 뒤 음절의 모음이 서로 같은 종류끼리 어울리려는 경향으로, ‘ㅏ, ㅗ’ 등의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ㅓ, ㅜ’ 등의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 [예] 글썽글썽
축약	⑥ 된소리되기(경음화): 예사소리였던 것이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 [예] 덮개[덱개], 닭고[담:꼬], 갈등[葛藤][갈똥]
탈락	자음 축약(거센소리되기): ‘ㄱ, ㄷ, ㅂ, ㅈ’과 ‘ㅎ’이 만나 ‘ㅋ, ㅌ, ㅍ, ㅊ’이 되는 현상 [예] 끝기다[끈키다]
첨가	자음군 단순화: 음절 끝에 겹받침이 올 때, 둘 중 한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 [예] 뭉[뭉], 앉다[안따], 외곬[외골/웨골], 할다[할따], 굴리다[굴리다], 없다[업:따], 까닭[까닥], 늑개[늑개], 여덟[여덜], 밭다[밭:따]
첨가	‘ㄴ’ 첨가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ㅍ’로 시작하는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뒷말의 첫소리에 ‘ㄴ’ 음이 덧붙는 현상 ① 앞말: 실질 형태소(어근)와 형식 형태소(접미사) 모두 가능하며 특별한 제약이 없음 ② 뒷말: 실질 형태소(어근) 또는 한자어 계열의 접미사여야만 함 [예] 콩엿[콩년], 영업용[영업농], 맨입[맨닙]

2 단어

(1) 품사

① 용언의 활용

㉠ 규칙 활용

개념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어간과 어미 모두 형태 변화가 없거나 보편적 음운 규칙으로 형태 변화가 설명되는 활용
종류	㉠ ‘ㄴ’ 탈락 규칙: 두 개의 모음이 이어질 때, 어간의 모음 ‘ㄴ’이 탈락함 [예] 담그 + 아 → 담가 ㉡ ‘ㄹ’ 탈락 규칙: 자음 ‘ㄴ, ㅂ, ㅅ’ 및 ‘-(으)오, -(으)르’ 앞에서 어간의 ‘ㄹ’ 받침이 탈락함 [예] 울 + 니 → 우니

㉢ 불규칙 활용

개념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과 어미의 기본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로, 보편적 음운 규칙으로 형태 변화를 설명할 수 없는 형태 변화를 하는 활용
종류	㉠ 어간이 바뀌는 경우 ‘ㄷ’ 불규칙: 어간 끝소리 ‘ㄷ’이 모음 어미 앞에서 ‘ㄹ’로 바뀜 [예] 묻[問] + 어 → 물어 ‘ㄹ’ 불규칙: 어간 끝소리 ‘ㄹ’이 모음 어미 앞에서 ‘ㄹㄹ’로 바뀜 [예] 흐르 + 어 → 흘러 ㉡ 어미가 바뀌는 경우 ‘ㄹ’ 불규칙: 어간이 ‘ㄹ’로 끝나는 일부 용언에서 어미 ‘-어’가 ‘-라’로 바뀜 [예] 이르[至] + 어 → 이르러 ㉢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 ‘ㅎ’ 불규칙: ‘ㅎ’으로 끝나는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ㅎ’이 없어지고 어미도 바뀜 [예] 파랗 + 아 → 파래

8일 차 [어법] 빈출 이론 ③-2

(2) 단어의 형성

① 파생어

개념	실질 형태소인 어근과 형식 형태소인 접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
종류	㉠ 접두 파생어: 접두사와 어근이 결합해 만들어진 파생어 ㉡ 뒋-: '거듭된' 또는 '겹쳐 신거나 입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 [예] 뒋신 ㉢ 헛-: '이유 없는', '보람 없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 [예] 헛되다 ㉣ 접미 파생어: 어근과 접미사가 결합해 만들어진 파생어 ㉤ 어근 + 한정적 접미사 • -남: '남자'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이혼남 • -보: '그것을 특성으로 지닌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꾀보 ㉥ 어근 + 지배적 접미사 • -롭다: '그러함' 또는 '그럴 만함'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예] 가소롭다 • -하다: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예] 근거하다

② 합성어

개념	실질 형태소인 어근이 둘 이상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
종류	㉠ 의미 범주에 따른 분류 ㉡ 대등 합성어: 어근이 대등하게 결합하여 본래의 뜻을 유지하는 합성어 [예] 논발 ㉢ 종속 합성어: 한쪽의 어근이 다른 한쪽의 어근을 수식하는 합성어 [예] 구름떡 ㉣ 융합 합성어: 어근들이 하나로 융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합성어 [예] 연세(年歲) ㉤ 형성 방법에 따른 분류 ㉥ 통사적 합성어: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과 일치하는 합성어 [예] 또다시 ㉦ 비통사적 합성어: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과 일치하지 않는 합성어 [예] 덮밥

3 문장

(1) 높임 표현

상대 높임법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이며, 종결 표현으로 실현됨
주체 높임법	서술의 주체(주어)를 높이는 방법으로, 선어말 어미 '-(으)시-'와 일부 특수 어휘(계시다, 잡수시다, 주무시다, 돌아가시다)를 통해 실현됨 [예] 아버지께서 책을 보신다. ① 압존법: 문장의 주체가 화자보다는 높지만 청자보다는 낮아, 그 주체를 높이지 못하는 어법 [예] 할머니, 어머니는 방금 나갔어요. ② 간접 높임: 대상의 신체 부분, 성품, 심리 등에 '-(으)시-'를 붙여 간접적으로 주체를 높이는 방법 [예] 선생님의 말씀이 웅오십니다.
객체 높임법	서술의 객체(목적어, 부사어)를 높이는 방법으로, 조사 '께'나 객체 높임 어휘(드리다, 모시다, 여쭙다, 뵈다, 찾아뵈다 등)를 통해 실현됨 [예] 나는 교수님께 궁금한 것을 여쭙보았다.

(2) 피동 표현

능동과 피동	① 능동(能動): 주어가 동작을 제 힘으로 하는 것 [예] 동생이 종이를 찢었다. ② 피동(被動):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 [예] 종이가 동생에게 찢겼다.
종류	① 파생적 피동문: 파생 접사에 의한 피동문으로, 능동사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나 '-되다'를 붙여서 만듦 [예] 임금이 깎이다. ② 통사적 피동문: '-어지다, -게 되다'에 의해서만 들어짐 [예] 새로운 말이 만들어지다.

9일 차 [어법] 빈출 이론 ④-1

1 문장 성분의 호응·생략

(1) 문장 성분 간의 호응

①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

부사어	서술어	예
모름지기, 마땅히, 당연히, 반드시	~해야 한다 (당위의 서술어)	학생은 모름지기 진취성을 가져야 한다 .
비록	~ㄴ지라도, ~지만, ~더라도, ~어도 (가정의 형태의 서술어)	아내는 비록 사소한 것일지라도 남편과 의논한다.
여간, 결코, 도무지, 비단, 전혀	~아니다 (부정의 서술어)	공원에 핀 꽃이 여간 아름답지 않았다 .

(2) 문장 성분의 생략

① 목적어의 생략

예	그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이고, 읽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다. (×) → 그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이고, 그녀를 읽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다. (○) ▶ 서술부 '읽고 싶어 하는'에 호응하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문장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녀를'과 같은 목적어를 넣어야 함
---	---

② 서술어의 생략

예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제치고 결승전 티켓 가능성은 희박하다. (×) →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제치고 결승전 티켓을 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 ▶ 목적어인 '결승전 티켓을'에 호응하는 서술어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구할'과 같은 서술어를 넣어야 함
---	---

2 중의적 표현

(1) 의미가 중복된 단어

1	가까이 접근(接近)	11	미리 예매(豫買)
2	가사(家事) 일	12	미리 예측(豫測)
3	거의 대부분(大部分)	13	분명히 명시(明示)
4	공기 를 환기(換氣)	14	빛나는 각광(脚光)
5	과반수 (過半數) 이상	15	새로운 신곡(新曲)
6	근 (近) 오년 가까이	16	여러 가지 다양(多樣)한
7	꾸며 낸 조작(造作)	17	오래된 숙원(宿願)
8	남은 여생(餘生)	18	이미 예고(豫告)
9	뇌리 (腦裏) 속	19	울며 통곡(痛哭/慟哭)
10	먼저 선수(先手)	20	푸른 창공(蒼空)

(2) 문장의 중의성

① 부정 표현에 따른 중의성

예	동호회 사람들이 약속 장소에 다 오지 않았다 . (×) → 동호회 사람들이 약속 장소에 다는 오지 않았다 . (일부는 오고 일부는 오지 않았다.) (○) → 동호회 사람들이 약속 장소에 다 오지는 않았다 . (일부는 오고 일부는 오지 않았다.) (○) → 동호회 사람들이 약속 장소에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다 .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 (○) ▶ 동호회 사람들이 일부는 오고 일부는 오지 않은 것인지, 한 사람도 오지 않은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문장임
---	---

9일 차 [어법] 빈출 이론 ④-2

② 수식 범위에 따른 중의성

예	선생님은 웃으면서 들어오는 학생을 반겨 주었다. (×) → 웃으면서 들어오는 학생을 선생님이 반겨 주었다. (학생이 웃다.) (○) → 선생님은, 웃으면서 들어오는 학생을 반겨 주었다. (학생이 웃다.) (○) → 선생님은 웃으면서, 들어오는 학생을 반겨 주었다. (선생님이 웃다.) (○) ▶ 학생이 웃은 것인지, 선생님이 웃은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문장임
---	--

③ 조사 '와/과'의 연결 관계에 따른 중의성

예	지혜는 공원에서 예지와 효주를 만났다. (×) → 지혜는 공원에서 예지와 함께 효주를 만났다. (○) → 지혜는 공원에서 예지와 함께 있는 효주를 만났다. (○) → 지혜는 공원에서 예지를 만나고, 그 다음에 효주를 만났다. (○) ▶ 지혜와 예지가 함께 효주를 만난 것인지, 예지와 효주가 함께 있는데 지혜가 가서 만난 것인지, 지혜가 예지와 효주 둘 모두를 각각 만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음
---	--

3번역 투 표현

(1) 영어 번역 투 표현

예	① 물리학은 가장 어려운 학문 중의 하나이다. (×) → 물리학은 가장 어려운 학문이다. (○) ▶ '가장 ~ 중의 하나'는 영어의 'one of the most ~'를 직역한 표현으로 이는 우리말 '가장 ~이다'로 바꿔 써야 함 ② 김 연구가는 이번 박람회로 통해 한국의 맛을 널리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 → 김 연구가는 이번 박람회로 한국의 맛을 널리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 → 김 연구가는 이번 박람회에서 한국의 맛을 널리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 ▶ '~을(를) 통해'는 영어의 'through ~'를 직역한 표현으로 이는 우리말 '~에', '~에서', '~(으)로' 등으로 바꿔 써야 함
---	---

(2) 일본어 번역 투 표현

예	그 회사는 IT 업계의 선두 주자에 다름이 아니다. (×) → 그 회사는 IT 업계의 선두 주자나 다름없다. (○) → 그 회사는 IT 업계의 선두 주자라 할 만하다. (○) ▶ '~에 다름 아니다'는 일본어를 그대로 직역한 표현이므로 우리말 '~(이)나/과 다름없다'로 바꿔 써야 하며, '~라 할 만하다'로도 고쳐 쓸 수 있음
---	--

4기타

(1) 피동 표현의 적절성 파악

개념	피동 접사(-이- / -히- / -리- / -기- / -되다)와 통사적 피동문의 표현인 '-어지다', '-게 되다'를 중복해서 사용하거나, 통사적 피동 표현을 중복해 사용한 '-어지게 되다'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예	김 교수는 잊혀진 역사에 주목하고 있다. (×) → 김 교수는 잊힌 역사에 주목하고 있다. (○) ▶ '잊다'의 피동사 '잊히다'와 통사적 피동 표현인 '-어지다'가 중복 사용되어 적절하지 않은 문장임

(2) 접속 부사 사용의 적절성 파악

개념	접속 부사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으므로 글의 흐름에 맞는 접속 부사를 사용해야 함
예	태풍은 수자원을 공급해 여름철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해 주며, 플랑크톤을 분해해 바다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등 많은 이점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태풍을 걱정하는 것은 태풍이 가져올 피해 때문이다. (×) → 태풍은 수자원을 공급해 여름철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해 주며, 플랑크톤을 분해해 바다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등 많은 이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태풍을 걱정하는 것은 태풍이 가져올 피해 때문이다. (○) ▶ 접속 부사 '그리고'의 사용이 어색한 경우이므로 '그러나'와 같은 역접의 의미를 가진 접속 부사로 수정해야 함

10일 차 [국어 문화] 빈출 이론 ①

1 표준어와 방언

구분	표준어	방언
1	가깝다	가참다
2	가르마	가늬베, 가래미 등
3	가위	가새
4	고쁠	행불
5	구린내	꾸렁내, 꾸릉내 등
6	그을음	끄름
7	꼬락서니	꼬라지
8	눈두덩	눈두덕
9	다래끼	눈사바리, 눈다랏 등
10	벼	나락
11	봉지	봉다리
12	부러	부로
13	부엌	정지
14	비렁뱅이	거렁배이
15	수고하다	욕보다
16	숙맥	숙매기
17	우수리	끝다리, 나투리 등

2 표준 언어 예절

문상할 때	문상객이 상주에게 '호상(好喪)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님
연말연시	① 송년 인사에서는 과거형 표현보다 현재형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정감 있는 표현임 ② 세배를 할 때 '절 받으세요', '앉으세요'와 같이 명령조의 말을 하는 것은 어른에 대한 예의가 아님

3 방송 언어

간접 화법의 쓰임	방송 언어에서 직접 화법은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므로, 간접 화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함 [예] 23일, 신인 연기자상을 수상한 배우 B 씨는 누구든 서로 응원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이 시기에 연기로 힘을 줄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발음	방송 언어에서는 발음을 정확하게 사용해야 함 [예] 이번 달 서울의 음식점 180곳[백팔십곳] 을 집중 단속한 결과, 86곳이 원산지 미표기로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남북한의 언어

남한 표준어	북한 문화어
① 두음 법칙을 인정함 ② 사이시옷을 표기함 ③ 의존 명사를 띄어 씀 ④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 쓸 수도 있음 ⑤ 모음 조화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음 ⑥ 인용 부호로 “ ”를 사용함	① 두음 법칙을 인정하지 않음 ②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음 ③ 의존 명사를 띄어 쓰지 않음 ④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붙여 씀 ⑤ 모음 조화를 지킴 ⑥ 인용 부호로 《 》를 사용함

5 순화어

구분	외래어	순화어
1	네티즌	누리꾼
2	데스크	부서장, 취재 책임자 등
3	메모리	기억 장치
4	보드마커	칠판펜
5	스팸 메일	쓰레기 편지
6	시간장치	잠금장치, 자물쇠 장치
7	패스	통과, 합격

11일 차 [국어 문화] 빈출 이론 ②

1 작가

(1) 고전 문학 작가

작가	특징
윤선도	① 조선 중기의 문신, 시조 작가 ② 당쟁으로 인해 여러 차례 벽지에서 유배 생활을 하였음 ③ 대표적인 작품으로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산중신곡(山中新曲)」이 있음
정약용	① 조선 정조 때의 문신, 실학자 ② 호는 다산(茶山) 또는 여유당(與猶堂) ③ 민족의 삶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작품을 많이 썼음 ④ 대표적인 작품으로 「보리타작[打麥行]」, 「탐진촌요(耽津村謠)」,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가 있음

(2) 현대 문학 작가

작가	특징
김유정	① 강원도 춘천, 1908년 1월 11일~1937년 3월 29일 ② 1930년대 농촌을 배경으로 하여 현실 비판 의식을 해학적으로 드러내는 농촌 소설들을 발표함 ③ 대표적인 작품으로 「소낙비」, 「금 따는 콩밭」, 「동백꽃」, 「만무방」 등이 있음
백석	① 평안북도 정주, 1912년 7월 1일~1966년 1월 ② 토속적인 언어로 서민들의 삶을 표현해, 민족 공동체의 정서를 시에 담아냄 ③ 대표적인 작품으로 「여승(女僧)」,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등이 있음
윤동주	① 북간도 명동촌, 1917년 12월 30일~1945년 2월 16일 ② 1941년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고 19편의 시를 묶은 자전 시집을 발간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3부를 남긴 것이 사후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로 간행되었음 ③ 대표적인 작품으로 「자화상」, 「소년」, 「눈 오는 지도」, 「또 다른 고향」, 「길」, 「별 헤는 밤」 등이 있음

2 작품

(1) 고전 산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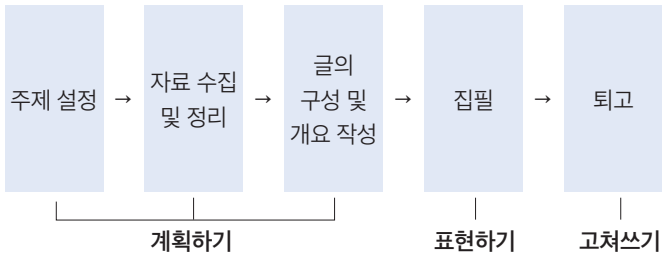
작품	특징
이생규장전	① 갈래: 한문 소설, 전기 소설, 명혼 소설 ② 주제: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 ③ 특징: 금오신화(金鰲新話)에 실린 다섯 편 중 하나로 전반부는 이생에서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고, 후반부는 죽은 여자와 산 남자의 사랑을 다루는 전기적 요소가 강한 소설임
꼭두각시 놀음	① 갈래: 민속극, 인형극 대본 ② 주제: 봉건 제도의 비판과 민중 의식 고취 ③ 특징 ㉠ 우리나라 고유의 극으로, 등장하는 인형의 이름을 따 흥동지놀음, 박첨지놀음이라고도 함 ㉡ 박첨지 마당과 평안 감사 마당으로 구성되나, 두 마당이 연관된 내용은 아님

(2) 현대 산문

작품	특징
강상련	① 갈래: 신소설 ② 특징: 이해조가 판소리 사설 「심청가」를 신소설 형태로 고쳐 쓴 소설
옥중화	① 갈래: 신소설 ② 특징: 이해조가 판소리 사설 「춘향가」를 신소설 형태로 고쳐 쓴 소설
토의 간	① 갈래: 신소설 ② 특징: 이해조가 판소리 사설 「별주부전」을 신소설 형태로 고쳐 쓴 소설

12일 차 [쓰기] 빈출 이론

1 글쓰기 과정



2 계획하기

단계	내용
주제 설정	① 주제: 글쓰기가 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 ② 유의점 ① 완결된 문장의 평서문으로 작성 ④ 글을 쓰는 목적과 예상 독자의 관심사, 배경지식 등을 고려해 선정해야 함 ⑤ 비유적·모호한 표현은 지양하고 글쓰이의 관점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① 자료 수집: 조사, 면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는 단계 ② 자료의 조건: 객관성, 신뢰할 만한 근거, 주제와의 관련성을 갖추고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함
글의 구성 및 개요 작성	① 글의 구성 ① 글쓰기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내용을 효과적으로 배열해야 함 ④ 단락 간의 내용이 모순되지 않으며, 일관성 있는 논리로 배열해야 함 ② 개요 작성 ① 개요: 글을 쓰기 전에 글의 제재를 주제와 목적에 맞게 배열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조직화해 놓은 것 ④ 개요 작성 원리: 개요의 항목들은 중요한 항목이 누락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 없이 통일성과 일관성을 갖출 수 있게 구성되어야 하며, 각 항목들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함

3 표현하기

- (1) 정확한 단어로 표현하기
- (2) 명료한 문장으로 표현하기
- (3) 개성적으로 표현하기

4 고쳐쓰기

(1) 단계별 고쳐쓰기의 원칙과 방법

- ① 단어 수준: 맞춤법, 띄어쓰기, 적절하지 못한 단어 수정
- ② 문장 수준: 중의적 문장 수정, 문장의 호응·길이를 고려해 수정
- ③ 문단 수준: 내용의 흐름·문단의 중심 내용을 고려해 수정
- ④ 글 수준: 주제에 맞는 제목으로 수정, 글 전체에 불필요한 내용 삭제

(2) 내용 보완하여 고쳐쓰기

구분	내용
신뢰성	출처가 명확한 근거, 관련 분야의 공신력 있는 전문가의 의견 인용, 통계 수치 등의 근거 제시는 신뢰성을 높임
완결성	한 문단 안에서는 주제문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진술을 함께 제시해야 함
일관성	한 문단 안에 있는 문장들 사이에 논리적 오류가 없어야 하며, 접속어와 지시어 등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야 함
체계성	문장과 문단 구성이 글의 내용 전개상 흐름에 맞게 제시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함
타당성	글의 중심 내용과 관련 있는 문장, 문단이 구성되어야 하며, 중심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인지 살펴보아야 함
통일성	한 문단에 둘 이상의 주제문이 있거나 주제와 관련 없는 문장이 없는지 검토해야 함

13일 차 [창안] 빈출 이론

1 조건에 따른 내용 생성

(1) 조건의 유형

개념	① 내용적 조건: 경각심 부여, 자료의 주제, 풍자 등 ② 형식적 조건: 문학적 표현법(비유, 반복 등), 언어유희, 종결 어미 등
예	• 대상의 특성을 드러낼 것 • 주제를 ‘협력’으로 삼을 것 • 음성 상징어를 사용할 것

(2) 시의 표현

① 중의(重義)

개념	한 단어로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방법
예	㉠ 靑山裏(청산리) 碧溪水(벽계수)야 수이 감을 자랑 마라. - 황진이이의 시조 ㉡ 수양산(首陽山) 바라보며 이제(夷齊)를 한(限)하노라. - 성삼문의 시조

② 반복(反復)

개념	같은 단어나 구절, 문장을 반복하여 뜻을 강조하는 방법
예	㉠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 작자미상, ‘청산별곡’ ㉡ 산에는 꽃 피네 / 꽃이 피네 / 갈 봄 여름 없이 / 꽃이 피네 - 김소월, ‘산유화’

③ 연쇄(連鎖)

개념	㉠ 앞 구절의 말을 다시 다음 구절에 연결시켜 연쇄적으로 잇는 방법 ㉡ 글에 변화를 줌으로써 흥미를 일으키는 방법
예	㉠ 바다 밧근 하늘이니 하늘 밧근 므서시고. - 정철, ‘관동별곡’ ㉡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뵈 / 고인(古人)을 못 뵈도 녀던 길 알피 잇네 - 이항, ‘도산십이곡’

(3) 언어유희(言語遊戲)

개념	말이나 글자를 소재로 하는 놀이. 말 잇기 놀이, 어려운 말 외우기, 새말 만들기 등이 있음
종류	① 동음이의어를 이용한 언어유희 [예] • 운봉의 갈비를 직신, “갈비 한 대 먹고지고.” • 개질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자를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यो. ② 유사한 음운이나 단어의 반복을 통한 언어유희 [예] 아, 이 양반이 허리 꺾어 절반인지, 개다리소반인지, 꾸레미전에 백반인지 ③ 단어나 문장의 도치를 통한 언어유희 [예] 어,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달아라. 물 마른다. 목 들어라. ④ 발음의 유사성을 통한 언어유희 [예] 미암이 립다 울고 쓰르람이 쓰다 우니

14일 차 [읽기] 빈출 이론

1 현대 시 이론

(1) 시의 표현

① 비유(比喻)

직유 (直喩)	원관념을 보조 관념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방법
의인 (擬人)	사람이 아닌 관념이나 사물에 인격을 부여해서 인간적인 요소를 지니게 하는 방법

② 강조(強調)

영탄 (詠嘆)	기쁨, 슬픔 등 벅찬 감정을 강조하여 감탄의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
------------	--------------------------------------

③ 변화(變化)

설의 (設疑)	결론이나 단정 부분을 의문 형식으로 표현하여 그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법으로, 더 효과적으로 상대방을 납득시키고자 할 때 쓰이는 방법
반어 (反語)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와 표현이 상반되도록 함으로써 정서를 심화시키는 방법
역설 (逆說)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진술을 통해, 그 이면의 중요한 진리를 드러내는 방법

(2) 시의 심상(心象)

개념	시를 읽을 때 마음속에서 그려지는 감각적인 영상이나 이미지로, 시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느껴지게 함
종류	① 시각적 심상: 색채, 명암, 모양, 움직임 등 눈으로 보는 듯한 이미지 ② 청각적 심상: 음성, 소리 등 귀로 듣는 듯한 이미지 ③ 후각적 심상: 냄새의 감각을 이용한 이미지 ④ 미각적 심상: 맛의 감각을 이용한 이미지 ⑤ 촉각적 심상: 피부에 닿는 감각과 관련한 이미지 ⑥ 공감각적 심상: 둘 이상의 감각이 결합하여 나타나는 이미지로, 감각이 전이되어 표현된 심상

2 현대 소설 이론

(1) 소설의 구성

개념	작가가 인물, 사건, 배경을 소설 속에 배치하여 이야기를 전개해가는 방법
종류	① 평면적 구성(순행적 구성):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는 구성 ② 입체적 구성(역순행적 구성):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지 않고, '현재→과거→미래' 등과 같은 시간의 역전이 일어나는 구성 ③ 액자식 구성: 하나의 이야기 속에 내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구성

(2) 소설의 인물

개념	소설의 사건과 행동의 주체를 인물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성격과 품성 등 내면적 속성도 포함됨
제시 방법	① 직접 제시(말하기, telling): 서술자가 인물의 특성을 직접 설명하는 방법 ② 간접 제시(보여주기, showing): 인물의 행동과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방법

(3) 소설의 시점

개념	서술자가 소설 속에서 취하는 위치
종류	① 1인칭 주인공 시점: 작품 속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시점으로, 주인공의 내면 묘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며 독자에게 신뢰감과 친근감을 줄 수 있음 ② 1인칭 관찰자 시점: 작품 속 서술자가 자기 외의 인물을 관찰하여 서술하는 시점으로, 주인공의 심리나 성격 묘사는 '나'의 주관적인 추측임 ③ 전지적 작가 시점: 작품 밖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 상태를 전지전능한 위치에서 서술하는 시점으로, 서술자가 작품 속에 직접 개입하기 때문에 독자의 상상력이 제한될 여지가 있음 ④ 3인칭 관찰자 시점: 작품 밖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나 사건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시점으로, 서술자의 태도가 객관적이기 때문에 독자의 상상력이 개입할 여지가 많아짐